

경력단절 여성의 임금손실 추정

수행과제명 ... 경력단절의 임금손실 추정

과제책임자 ... 김 종 숙 연구위원

Tel: 02-3156-7135, e-mail: jskim@kwdimail.re.kr

요약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완화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어 재취업한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손실을 경험함.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할 때 경험하는 임금의 손실을 측정하고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로 경력단절된 여성들은 재취업시 평균 19~21.9%의 임금 및 소득손실이 발생하고 경력단절 기간이 길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손실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1. 배경 및 문제점

-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완화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 경력단절 이후 노동시장으로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고용지위가 낮아지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함. 여성의 경력단절은 이후 업종이나 직종선택의 제한을 가져오며, 비정규화, 저임금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 개인적 차원 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경력단절로 인한 인적자본의

질이 악화되고, 재취업 등을 위하여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비용이 증가하며 소득의 감소나 불안정성은 사회보장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함

- 경력단절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규모면에서 부족함. 그 원인 중 하나는 구체적으로 경력단절 여성들의 규모가 얼마나 되며, 경력단절로 인한 손실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계량적인 제시가 부족한데 있음
- 기존의 연구들은 경력단절의 현상과 원인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분석이 부족하였음.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경력단절이 가져오는 손실의 규모를 제시함으로써 이 문제가 여성노동시장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고자 하였음

2. 조사 및 분석결과

1) 비모수적인 방법인 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사용한 결과

- PSM은 준실험적 방식을 부분적으로 보완한 것임. 준실험적 방식(Quasi experiments)의 기본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음. 실험참여자와 가능한 유사한 인적특성을 가진 집단을 비교집단으로 구성하여 실험 이후에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임
- 경력단절로 인한 임금손실을 추정하는데 있어 자료가 가지는 가장 큰 약점은 선택편의가 발생한다는 점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모수적인 방법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비교그룹의 선택자체가 편의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이 편의로 인하여 관찰되지 못하는 특성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침(강순희 외, 2000)

-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따라 선택편의를 다소 감소시킬수 있으며 이 편의를 줄이기 위하여 짝짓기 방식을 준용한 성향점수매칭법을 활용하였음. 성향점수매칭법은 지속적으로 취업을 유지한 집단과 경력을 단절한 경험이 있는 취업자 집단의 성향점수를 통하여 유사한 성향을 가진 사람간에 짝을 지우고 이들의 임금을 비교함으로써 가능함
-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노동패널임. 노동패널은 현재까지 11차년도 자료가 구축되어 있음. 1~11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이 분석을 위하여 11년을 모두 응답한 응답자 중 연속취업자와 취업-비취업-취업의 상태를 보유한 표본이 이용되었음. 1~11차 모두 응답자 중 ① 경력단절이 없는 연속취업자(con), ② 경력단절이 있는 취업-비취업-취업자(non3)의 두 그룹으로 나누었음
- 전체 비취업의 임금손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2,223명임. 이중 여성은 전체의 33.38%이며 남성은 66.62%임. 여성 중 연속취업자의 비중은 64.82%이며 남성은 이 비중이 79.61%임.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혼인, 임신, 출산, 육아, 가사 등의 사유로 비취업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임. 처치효과를 산출하는데 있어서는 남성의 표본수가 너무 적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워 여성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표 1〉 PSM 분석에 사용된 그룹 구분

(단위: 명, %)

	연속	취업-비취업-취업	Total
남성	1,179	12	1,191
	98,990	1,010	100,000
	71,020	8,630	66,200
여성	481	127	608
	79,110	20,890	100,000
	28,980	91,370	33,800

	연속	취업-비취업-취업	Total
Total	1,660	139	1,799
	92.27	7.73	100.00
	100.00	100.00	100.00

- 분석결과 경력단절 사유와 무관하게 비취업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40.3%의 임금 및 소득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로 경력단절된 여성들은 21.9%의 임금 및 소득손실이 발생하였음. 비자발적인 비취업의 손실이 자발-비자발성을 모두 포함한 손실에 비하여 규모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임
- 연령효과로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로 경력단절된 여성들은 30대에서는 손실규모가 3.4%로 적게 나타났지만 40대에는 이 크기가 20.5%, 50대에는 78.9%로 매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젊은 연령에 빨리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생애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임을 보여주었음
- 학력효과로 고졸미만의 손실효과가 가장 적어서 저학력 집단의 손실이 적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유사하였고 거꾸로 고학력 여성들에게는 경력단절이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
- 기간효과로 5년 이상의 장기 경력단절을 거칠 경우 임금의 손실은 38.8%로 평균 손실보다 약 1.8배나 높게 나타났음. 반면 5년 미만의 경력단절을 거칠 경우 이 손실은 평균보다 낮은 18.7%의 손실 정도를 보여주고 있어 경력단절 기간을 짧게하면 할수록 손실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의 손실이 유의하게 더 커서 직업훈련의 임금에 미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현재 비임금 근로자는 경력단절 경험이 있고 난 후 오히려 임금 및 소득이 상승하여 자영부문의 소득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음

〈표 2〉 혼인, 임신, 출산, 육아, 가사 등 사유로 비취업한 여성의 평균처리효과(ATT)

	nearest	Treatment group	Control group	ATT	Std. Err.	t-value
연령	30~39세	35	38	-0.034	0.266	-0.126
	40~49세	62	156	-0.205	0.186	-1.105
	50~59세	20	162	-0.789	0.193	-4.083***
	60세 이상	9	123	-0.232	0.305	-0.762
학력	고졸미만	35	283	-0.190	0.191	-0.996
	고졸	66	123	-0.391	0.178	-2.196*
	초대졸	10	28	-0.241	0.368	-0.656
	대졸이상	16	47	-0.256	0.410	-0.625
직훈	직업훈련 유	47	131	-0.310	0.231	-1.342
	직업훈련 무	80	350	-0.246	0.123	-2.003*
자격	자격증 유	40	88	-0.426	0.255	-1.670
	자격증 무	86	393	-0.230	0.124	-1.853*
지위	임금근로자	77	193	-0.259	0.073	-3.541***
	비임금근로자	50	288	0.403	0.183	2.198*

주: *는 90%, **는 95%, ***는 99%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2) 모수적 방법인 OLS와 Heckman 2SLS를 사용한 결과

- 모수적 방법을 이용할 경우 경력단절을 겪은 개인의 퇴직시 임금과 재취업시 입직 임금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음. 이는 경력단절을 겪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간의 비교에 초점을 맞추는 분석 전략에 비해 동일한 개인의 두 일자리 임금을 비교하기 때문에 비실험 상황에서 경력단절 이외의 다른 조건들을 갖게 만드는데 다소 유리하다는 잇점을 가짐
- 본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비모수 방법과 동일하게 노동패널자료이며 1~11차에 덧붙여 직업력 자료도 활용하였음. 재취업시 입직임금을 종속

변수로 하는 OLS 회귀분석 모형의 분석대상은 전체 분석대상 793명 중 재취업에 성공한 558명(70.4%)이며, 헤크먼 2단계 모형 추정에서는 재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을 모두 포함한 793명이 모두 분석대상이 됨

- 한편 결혼, 출산, 육아 및 가사의 이유로 일자리를 그만둔 통상적 의미의 경력단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사용한 표본의 수가 지나치게 적어서 “사실상(virtual)” 경력단절 집단을 추출하여 그들의 임금손실 규모를 예측할 수 있음에 주목하였음. 여성이면서, 실직기간이 5년 이상이면서, 기혼일 경우의 그 집단을 “사실상의” 경력단절 집단이라고 가정하였음. 성별변수와 실직기간변수와 혼인여부 변수 각각과 다른 독립변수들과의 상호작용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다소 강한 가정을 기반으로 하여 “사실상 경력단절” 집단의 임금손실 예측치를 실제 경력단절 집단의 임금손실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가정은 자기보고에 근거한 경력단절 여성의 규정을 보다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자기보고의 부정확성과 주관성의 문제를 다소나마 분석에서 제거하고자 함임
- 사실상 경력단절 그룹의 평균 임금손실 비율은 19%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이들 중 퇴직시 평균이상의 임금을 받던 사실상 경력단절 여성은 재취업시에 무려 27%의 임금손실을 겪게 될 것으로 예측되어 고임금 근로자들의 경력단절로 인한 손실이 훨씬 컸음

3. 정책제언

제안1) 경력단절여성 대상 사업의 확대

- 경력단절의 손실에 미치는 단절기간 효과가 매우 크므로 가능하면 이

- 기간을 단축시키도록 적극적인 경력단절여성재취업 지원정책을 해 나가야 함. 5년 이상 경력이 단절되면 큰 손실을 경험하므로 경력이 단절되었다 하더라도 1~2년 새 복귀를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동시에 직업훈련은 경력단절로 인한 손실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직업훈련의 효과성이 검증되었음
 - 현재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새로일하기’사업의 대상자가 경력단절 여성의 규모에 비하여 매우 부족하므로 동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경력단절 초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정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제안2) 재직자 경력단절 예방정책 강화

- 경력단절의 손실 규모가 매우 크며, 고학력화에 따라 손실규모는 더 커지게 됨. 재직자들이 경력을 단절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정책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임. 일가정양립, 모성보호, 유연한 근로시간 등 제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분석결과 고학력 여성들의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향후 경력단절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손실은 더욱 커지게 될 것임. 자녀수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한자녀로 인한 단절 기간은 생애 경력과정에서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없음. 이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함
- 사업장 단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나 중소기업 등 인력운용이 어려운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4. 기대효과

- 본 연구는 기초 연구로서 경력단절이 가져오는 손실의 규모를 측정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경력단절의 문제는 여성노동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현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우선 순위를 두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후 경력단절 여성 지원정책이 확대, 강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관부처 :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관계부처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협의회